

백종원 “방송 출연은 ‘한식 세계화’ 위한 데이터베이스”



‘백종원 클라쓰’ ‘백스피릿’ 등 외국에 한식 알릴 기회 코로나로 요식업계 신음… ‘맛남의 광장’ 농어민도 도움 필요 ‘골목식당’서 배달 업체·일부 손님 ‘갑질’ 문제 다뤄볼 것

“방송 출연하기보다는, 한식 문화와 관련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쌓는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프레젠테이션 나서야 하나까요.”

외국인들에게 손쉬운 한식 레시피를 알려주는 KBS 2TV ‘백종원 클라쓰’, 글로벌 푸드의 인기 비결을 짚어보는 JTBC ‘백종원의 국민음식’, 국내 제철 식자재를 찾아 떠난 티빙 ‘백종원의 사계’, 한국 전통주를 조명하는 넷플릭스 토크쇼 ‘백스피릿’, 그리고 기존에 출연 중인 SBS TV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맛남의 광장’까지.

최근 서초구 반포동 사무실에서 만난 백종원(54) 더본코리아 대표는 최근 부쩍 잦아진 듯한 방송 출연에 대해 “미리 짚어둔 게 많은데 공교롭게 론칭 시기가 겹쳤다”고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콘텐츠들마다 나름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예능보다는 다큐멘터리 같은 교양적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에 의미를 부여했다.

“‘백스피릿’은 전통주를 알려보자는 생각으로 기획했는데 우리 술을 알리기 위해서는 노후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외국을 대표하는 와인부터 맥주, 위스키까지 먼저 조명해보면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 이런 포맷이 됐어요. 전 전통주 시장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커요. 집에서 술을 담가 먹던 가양주 문화가 사라지고 희석식 소주가 국가 대표 격

이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큼니다.”

오랜 기간 진행 중인 ‘골목식당’의 새로운 도전도 예고했다.

“솔루션이 도심에만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지역으로 가보려고요. 처음 취지는 도심 속 낙후된 골목상권에 도움을 주자는 좋은 뜻이었지만 결국 빈익빈 부익부라고, 도시는 재생의 기회가 있어도 지역은 그럴 기회조차 없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지역마다 충분한 식자재와 스토리텔링 요소가 있거든요. 잘만 만들면 관광객을 부를 수도 있고요.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백 대표는 “골목을 만들 기회조차 없는 곳에 젊은 피들을 수혈해서 먹을거리를 만들어놓고 한 달 이상 그 지역을 방송에서 다루면 ‘기회’가 생길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프로젝트 역시 2년가량 기획했다. 첫 솔루션 지역은 제주도다. 관광지가 아닌 낙후돼 외면받던 지역이 대상이다. 관광객이 이미 있고, 주변에 이미 관광지도 있으니 좋은 실험지다. 백 대표는 “제주 편이 성공하면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많은 자영업자가 고통받는 상

황이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점주들도 영업 정상화가 계속 지연되면서 신음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 힘들어하죠. 하지만 우리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버티는 마음일 거예요. 국가가 안정돼야 하니까 잠는 건데, 생존이 걸렸으니... 점주들뿐만 아니라 ‘맛남의 광장’을 통해 만나는 농어민분들도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이 프로그램은 상황상 조금 쉬었다 가고 싶어도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코로나19 장기화에 음식을 배달해 먹는 경우가 늘면서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와 일부 손님의 이른바 ‘갑질’ 문제 등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나 손님들만 탓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보면 점주들은 정말 힘들다. 배달비는 배달비대로 쓰고, ‘별점 테러’ 같은 것 때문에 난리”라며 “‘골목식당’에서 이 문제를 한 번 다뤄보려 한다. 배달 앱 업체들이 협업할지는 모르겠지만, 체면 포맷으로 현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본업과 방송 출연 외에 개인 유튜브와 한식 홍보 대사 노릇을 하는 외국인 크리에이터들 매니저먼트까지 백 대표는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배우 소유진과의 사이에서 삼남매를 얻은 다둥이 아빠이기도 하다.

“모든 걸 수익성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국내 외식 문화를 개선하고, 한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쌓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방탄소년단과의 콜라베이션도 마찬가지였어요. 착한 척 기부하다 보니 실제로 착한 일도 하게 되듯이, 요식업계와 나라에 도움이 되는 척하다 보니 실제로 도움이 되려고 투자가 많이 하게 됩니다. (웃음)” /연합뉴스

추자현 남편 위샤오광, 외도 의혹 “해프닝” 일축 선우정아, 신곡 ‘버팔로’ 들고 돌아온다

배우 추자현의 남편인 중국 배우 위샤오광(于曉光·39·사진)이 영상을 통해 온라인에서 확산한 외도 의혹을 부인했다.

위샤오광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5월 지인들과의 모임 후 귀가 과정에서 있었던 해프닝”이라며 “영상에 등장하는 분들은 가족끼리도 왕래하는 감독님과 친한 동네 지인분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친한 지인이어도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께서 위샤오광, 추자현 부부를 아껴주시는 만큼 해프닝이 확산한 것에 대해 당사자들 역시 앞으로의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온라인을 통해 확산한 영상 속에서 위샤오광은 차량에 탑승한 후 한 여성을 자신의 다리에 앉혔고, 그 상태로 차가 출발했다.



출연, 아내를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으로 ‘우블리’라 불리며 사랑받았다.

위샤오광과 추자현은 2012년 중국 드라마로 인연을 맺고 2015년 공개 연애를 시작, 2017년 부부가 됐으며 2018년 아들을 얻었다. /연합뉴스

한 중국연예 매체는 “위샤오광이 늦은 밤 술집에서 나와 여성과 함께 차를 타고 떠났다”고 보도했다.

위샤오광은 추자현과 함께 SBS TV 스타 부부 관찰 예능 ‘동상이몽’에 출연, 아내를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으로 ‘우블리’라 불리며 사랑받았다. 위샤오광과 추자현은 2012년 중국 드라마로 인연을 맺고 2015년 공개 연애를 시작, 2017년 부부가 됐으며 2018년 아들을 얻었다. /연합뉴스

소피 연예인과 ‘황소’ 콘셉트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사진)가 소피 연예인들과 함께 ‘황소’를 콘셉트로 한 강렬한 신곡을 들고 돌아온다.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는 오는 25일 선우정아 신곡 ‘버팔로’(BUFFALO)가 발매된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공개한 티저 영상에는 갑자기 머리에 빨이 솟아나는 선우정아의 모습이 그려졌다. 흑백의 배경과 붉은 눈, 웅장한 음악이 파격적인 콘셉트를 예고했다.

소속사는 “솔 발라드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선우정아가 이번에는 전혀 다른 색의 강렬한 비주얼과 새로운 음악을 들고나올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신곡은 소피인 선우정아가 신축년인 올해를 기념해 기획했다. 송은이, 정세운, 유승우, 드림캐처 다미 등 소피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해 제즈를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였다. 자작곡인 ‘구애’, ‘그러려니’, ‘도망가자’ 등이 대표곡이다. /연합뉴스

연예인들이 피터링에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선우정아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들의 녹음 현장을 담은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2006년 1집 ‘매스터지’로 데뷔한 선우정아는 2013년부터

홍상수 신작 ‘당신 얼굴 앞에서’ 칸 공개 앞두고 해외 수출 계약

홍상수 감독의 신작 ‘당신 얼굴 앞에서’가 칸국제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을 앞두고 해외 각국과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고 해외 배급사 화인콧이 15일 밝혔다.

현재까지 미국, 대만, 브라질, 일본, 영국 등의 배급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른 각국 배급사와 논의의 이어가고 있다고 화인콧은 전했다. 이혜영이 주연한 ‘당신 얼굴 앞에서’는 칸 영화제 초청된 홍 감독의 11번째 영화로, 올해 신설된 프리미어 부문에서 16일 처음 공개된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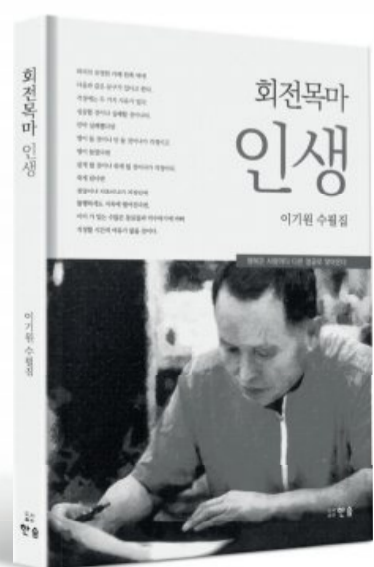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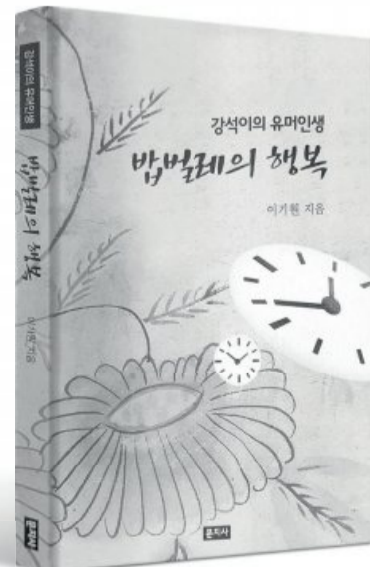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정가 12,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르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틀터먼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